

전국 최초 공동브랜드 개발

도, 전주시·사회적 기업과 협약 체결... 공공구매 확대키로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간 공동브랜드 개발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전주시·사회적기업(10개 기업)간 공동브랜드 생산제품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마케팅 전문가와 시·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열악한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진출 및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공감

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는 그간 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든 딱딱하고 소비자와 동떨어진 공동브랜드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모여 이번 공동브랜드 사업의 모태가 됐다.

이에 도는 2015년 3개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한국사회적경제전자상거래지원센터(KSEA)'가 주도하여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됐다.

현재 도내 7개 사회적 기업이 공동

브랜드개발에 서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MOU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될 경우 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를 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유통 운영관리 시스템 등의 공동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판로 개척 및 확대로 기업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생산제품에 대해 향후 제품에 대한 경쟁력,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국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오색국화의 대한연인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난 28일 오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점 의혹 특감 착수

교육부, 오늘 착수... “결석 대체 인정 자료 부실 자료 제출 안해도 성적 부여”

교육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31일 착수한다.

특별감사관 대학에서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 감사관실이 해당 문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조사에서 정양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하고 특히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입제도과와 대학학사제도과는 정씨의 입학, 출결, 학칙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해왔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11일까지 예정돼 있던 조사를 앞당겨 마무리짓고,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출결 현황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검찰은 여아가 특검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지 하루 만인 27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 본부를 꾸렸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이후 9년 만이다.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정씨의 이대 입학·학점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11월초에 마무리하고 특감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시간을) 질질 끌어봐야 교육부에 특별 게 없지 않느냐”며 “(감사를) 언제쯤 해야겠다.

뒤 이런 것은 11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뿐 아니라 다른 체육특기자들도 감사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다른 체육특기자들도 출결과 성적을 부실하게 관리,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대 체육 특기자 전반에 대한 임시관리 실태, 체육특기자 출신·성적 관리에 구조적인 부실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지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1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내달 2일,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원광대 문화체육관서... 구직·취업성공 패키지 부스 등 운영

구직자에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1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익산시, 전북도가 공동주최하고, 취업관련 기관이 함께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35개 부스와 구직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성공패키지 부스 및 취업상담 컨설팅관, 이미지메이킹, 전문직성검사전, 창업

컨설팅, 직업훈련 등의 부대행사관을 포함 총 55개 부스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국내경기의 급속한 불황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에는 도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생명과학, 오리온, 하림, 광전자, 효성과 중견기업인 지엔, 전방, 신평산업, 진우에스엠씨, 위델소재, 제일건설 등 지역 내 35개 우수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한다.

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공식사이트(<http://open.jobkorea.co.kr>)에서 에서 박람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박람회 사무국(280-4774~5)에서 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4대 종단 종교지도자, 익산시 역사·종교 탐방 나서

왕궁리 유적전시관·미륵사지·망성면 나바위 성당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전북 익산지역을 둘러보는 역사탐방을 지난 28일 가졌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세계종교평화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익산의 4대 종단 지도자 대표들과 세계종교평화협회 이광익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4대 종교 간 화합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인들은 백제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궁리 유적전시관에서 출발해 백제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미륵사지, 조선인 최초로 천주교 사제가 된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입국해서 첫 발을 내딛은 익산 망성면 나바위 성당을 둘러봤다.

또 원불교를 선포하고 역대 지도자들의 유해가 봉안된 원불교중앙총부과 지난 1897년 익산 최초로 설립돼 3.1 독립만세운동과 4.4 익산 습리 독

립만세운동의 진원지인 오산면 남전교회를 탐방했다. 이들은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가을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사탐방이 형형색색 국화향기가 물씬 풍기는 익산에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의 화합과 대통합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시민 불편사항 제보 받아

내달 21일까지 상시 운영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를 받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견제와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장치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 30개소에 홍보용 플래카드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습니다!”를 붙이고 홍보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다음달 15일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간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접수 받는다. 시민제보는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군산시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거나 직접 내방 또는 전담 접수처 민원담당관(☎450-5840, 팩스 452-8156)으로 21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전북도는 ‘제17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대상 수상자를 살펴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공공부문에는 ‘옥천골 미술관’이 사용승인 일반부문은 ‘무주 펜션다다’가 선정됐다.

또 학생부 전체대상 부문은 ‘Preparing for trip’이 차지했다.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열리며, 오는 29일부터 시상식 당일까지 도청 1층 기획전시실 등에 수상작이 전시된다. /뉴시스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